

雁鳴池 造營과 新羅王家의 風俗

박경자* ·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building of An-ap pond and the customs of Royal Family during Shilla Dynasty

Park, Kyung-Ja* · Yang, Byoung-E**

*Ph.D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ccording to the Samkuk Saki(History of Three Nations), An-ap pond was constructed in the 1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Mun-mu. But this period precedes the unification of Shilla(in the 16th year the reign of King Mun-mu) and Shilla was at war. Therefore I suppose the 16th year of the King's reign is jus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pond. But the real construction had not been started before the 16th year of the King's reig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nations into Shilla Dynasty. Another record of making a larger pond(the 1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Kyung-duk) may signify the enlargement of the very pond that had been built the 16th year of King Mun-mu's reign.

Korean traditional belief was the belief in the Dragon, the Mountain God, and the Heavenly God and these was deeply rooted in the Royal family and perhaps had influenced the building of An-ap pond. Namely it is explained that Em-hae Jun symbolizes the An-ap pond itself as the sea and the Dragon lived in the sea and also the mountain built in the East bank of An-ap pond is related to the Mountain God.

And also Taoism's Sin Sun Sa-Sang(Paradise philosophy) had influenced the building of the three legendary immortal islands, called Yong Ju, Bang-Jang, Bong-Rae in the An-ap pond.

It is supposed that the age of An-ap pond from the above mentioned facts and inferences and we can als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Royal family customs on the building of An-ap pond. The inscriptions on the vessels and architectural accessories suggest us the influence of the Royal family customs on the construction of An-ap pond.

I. 서론

雁鴨池는 新羅時代 慶州에 宮城인 月城의 離宮인 東宮에 造成된 苑池¹⁾이다. 이 雁鴨池는 1975-76년 사이에 發掘되어 造營된 당시의 모습을 거의 드러냈고 發掘된 遺溝에서 雁鴨池 造營 이전의 狀態를 파악할 수 있다.

雁鴨池 造營時期는 三國史記에 記錄되어 있으나 그이외에 雁鴨池 造營을 전후한 시대적 배경에서도 그 時期를 推定해 볼 수 있다.

雁鴨池 造營에는 三國統一을 즈음한 新羅의 여러 王家風俗이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雁鴨池 發掘時 出土된 在銘 遺物에서 이러한 王家風俗의 斷面들을 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三國史記에 기록된 雁鴨池 造營時期를 그 時代의 政治的 狀況과 後代의 기록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그 造營時期를 새로이 推定해 보려고 하며 또 新羅王家 風俗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전혀없는 現狀況에서 기 연구된 在銘遺物의 銘文에서 당시의 王家風俗을 부분적으로나마 밝히고 그 王家風俗이 雁鴨池 造營에 미친 影響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雁鴨池 發掘 調查報告書와 기 發表된 여러 研究論文들을 調查分析하여 雁鴨池 遺溝와 그 造營時期를 推定하고 당시의 王家風俗과 그것이 雁鴨池 造營에 미친 영향도 밝히고 그러기 위해 직접 國立慶州博物館의 雁鴨池館에서 在銘遺物을 確認하는 과정을 걸쳐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II. 역사적 배경

雁鴨池에 관한 현재까지 조사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생각되는 것은 三國史記 文武王 14년(674) 2월條로서 ‘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 즉 ‘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花草를 심고 珍貴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것이다.

이 雁鴨池 造成을 전후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羅는 唐과의 연합으로 武烈王 7년(660)에 百濟를, 文武王 8년(668)에는 高句麗를 멸망시켰다. 百濟가 망한 뒤 百濟故土의 復興軍이 일어나 新羅軍과 唐軍은 연합하여 진압하였으나 唐은 百濟故土에 5都督部를 두어 직접 관할하려 하였다. 그리고 新羅에는 鷄林大都督府를 두고 文武王을 鷄林州大都督에 임명하는 한편 義慈王의 아들 夫餘隆을 熊津都督에 임명하여 文武王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百濟遺民을 무마하여 新羅를 견제하였다.

高句麗가 망한 후는 그 故土에 9都督府를 두고 平壤에 安東都督府를 두어 東方 전체를 통괄하려 하였다. 新羅는 高句麗가 망하기 전까지는 唐과 굴욕을 참아가면서 협조하였으나 高句麗가 망한 후로는 적극적으로 百濟의 故土와 高句麗의 故土를 수복하여 唐軍의 축출을 꾀하였다.²⁾

마침내 文武王 16년(676)에 安東都督部를 추출하여 新羅는 名實相符한 統一國家를 이룩하였다.

宮內에 雁鴨池를 造成한 文武王 14년은 新羅

1) 朴方龍, 新羅 都城의 宮闕配置와 古道, 考古歷史學誌, 第 11·12合輯,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6.

2) 崔永福, 歷史의 背景, 雁鴨池, 文化財管理局, 1978

로서는 국내외적으로 복잡 多難한 시기이었다.

그러한 혼란한 시기에 宮內에 못을 造營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하였을까는 의문시 된다. 이러한 이유로 文武王 14년의 기록은 雁鴨池가 완성된 기록이 아니라 그러한 雁鴨池의 造成工事を 착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설사 그 시기에 雁鴨池가 造成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造營이 아니고 文武王 16년 新羅의 名實相符한 三國統一을 이룩한 이후에야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三國史記 景德王 19년 2월의 '宮中穿大池'란 기록에서도 이 大池가 어떤 못인지는 알 수 없다하더라도 기간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 大池가 文武王 14년에 착수했던 雁鴨池를 확장보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Ⅲ. 雁鴨池의 造營

三國史記 文武王의 기록과 東史綱目的 '王於宮內穿池 積石爲山象 巫山十二峯 種花卉養珍禽 其西卽臨海殿 池今稱雁鴨池 在慶州天柱寺北'을 보면³⁾ 文武王대에 와서 宮池를 조성하고 巫山十二峯의 가산을 만들어 기이한 꽃과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文武王은 궁궐을 화려하게 重修하였고 19년에 東宮을 건립하였다. 雁鴨池는 東宮인 臨海殿에 연하여 있다.

雁鴨池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76년 3월 25일 까지 護岸石築調査와 함께 못내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1976년 5월 10일부터 동년 12월 말까지 못주변 建物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이 때 많은 遺物들이 수습되어 雁鴨池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文武王 때에 이 못을 造成했다는 사실은 발

굴을 통해 수습된 在銘 文瓦에 '儀鳳四年'이라 새겨져 있는데 儀鳳四年은 중국 唐高宗때의 年號로서 文武王 19년(679)이며 또 在銘 塼片에는 '調露二年'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 調露二年은 文武王 20년(680)에 해당한다.

출토유물들의 銘文의 연대가 名實相符한 삼국통일의 시기인 文武王 16년(676) 이후인 것도 또한 이 시기 이후에 雁鴨池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雁鴨池가 당시에 새롭게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있었던 못을 이용하여 다시 어떤 목적에 따라 재조성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어 발굴을 통해 조사해 본 결과 현재의 모습대로 雁鴨池가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못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일부 밝혀졌다. 즉 西岸의 護岸石築 築造方法을 알기 위해 斷面調査를 실시한 결과 현존의 石築 뒷편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개흙의 흔적을 일부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 보아 현존의 石築은 이미 있었던 못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재조성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으나 완전한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石築을 제거하고 조사를 해야 가능하므로 중지했다.⁴⁾ 위의 사실로써 雁鴨池는 文武王 14년에 이미 있었던 못에 인공적인 대대적인 연못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그 서쪽은 東宮인 臨海殿에 연하여 있고 동쪽 호안에 巫山十二峯을 만들고 기이한 꽃과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결과 못속에 3개의 섬이 확인되었다. 이 세 섬은 도교의 神仙思想에 의한 瀛州, 蓬萊, 方丈의 三神島라고 한다.⁵⁾

Ⅳ. 在銘遺物에서 본 新羅王家 風俗과 職官

민간신앙은 민간층에서 보편적이고도 뿌리

3) 東史綱目,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78

4) 趙由典, 黃龍寺와 雁鴨池, 경주박물관대학 강의 교재, 1994.

5) 정재훈, 造景學的 考察, 雁鴨池, 文化財管理局, 1978.

깊은 宗教的 現象으로 전승되고 있다.⁶⁾ 고 할 때 왕가신앙도 왕가에 보편적인 종교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왕가풍속은 의, 식, 주 그 밖의 신앙을 포함한 모든 생활에 관한 습관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신라의 왕가 풍속에 대한 연구는 아직 행해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雁鴨池 발굴시 출토된 유물에서 당시의 왕가풍속을 다소나마 읽을 수 있다.

본장에서는 雁鴨池 유물과 그 銘文⁷⁾에서 당시의 왕가풍속을 읽고 그것과 雁鴨池 造營과의 관계를 살펴 보려한다.

1. 在來信仰

① 龍, 山神 信仰

龍王에 대한 信仰과 山神에 대한 信仰이다.

• 접시, 완, 대접 등의 內底面에 ‘辛審龍王’이나 ‘龍王辛審’ 銘이 大字로 陰刻되었다. 三國史記에 東宮에 龍王典이 있다 기록되었으며 이 辛審龍王과 龍王辛審이 쓰인 容器는 이곳에서 사용된 것 같다.

이 銘文에 대해서는 新羅 憲康王 앞에서 춤을 춘 南山神의 이름이 祥審이고 춤이름이 御舞祥審 또는 御舞山神이라고 三國遺事에 기록된 것을 典據로 하여 辛審은 山神을 稱한 것이라는 韓炳三의 글이 있다.⁸⁾ 이 글대로 풀이하면 山神龍王과 龍王山神이 된다.

三國史記에 龍이 우물과 못 그리고 서울에 나타났고 龍을 그려 비오기를 빌었다는 기록이 雁鴨池 造營 文武王 이전에 여러번 있는 것으로 보아 龍信仰이 이미 뿌리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山神信仰에 대한 것으로는 三國遺事에 金庾信장군과 관계된 다음과 같은 說話가 있다.

‘庚信이 麗.濟 두 나라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이 꾀하고 있을 때, 白石이라는 자가 그 일을 알고 朗에게 告하되 自己와 公이 함께 몰래 敵國을 先探한 후에 圖謀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니 朗이 기뻐하며 親히 白石을 다리고 밤에 떠나서 고개위에서 막 쉬고 있을 때, 두 女子가 나타나 朗을 따라왔다.

骨火川에 이르러 留宿하매, 또 한 女子가 忽然히 와서 公은 三娘子와 더불어 기쁘게 이야기 하였다.... 娘들이 告하되 公의 말하는 바는 이미 알고 있다. 원컨데 公은 白石을 그냥 두고 우리와 함께 숲속에 들어가면 다시 實情을 말하겠다 하고 이어 함께 들어갔다. 娘들이 문득 鬼神이 되어 말하기를 우리들은 奈林 .穴禮. 骨火 등 三所의 護國神인데, 지금 敵國人이 朗을 誘引하는 것을 朗이 알지 못하고 따라가므로, 우리가 朗을 挽留 시키려 이곳에 온 것이라고 하고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아니하였다.’⁹⁾

여기의 세 娘子는 三山의 護國神(山神)이 人格化된 것으로 金庾信의 守護를 통하여 新羅의 護國神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土製의 소완의 口緣部片과 흑칠찬합의 底部의 內底面에 ‘龍’ 字가 새겨있다.

이것은 어떤 의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意圖의으로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龍王信仰과 관련된다.

• ‘井’ 字銘은 각종 容器類인 高杯, 高杯蓋, 접시, 완의 內外面 등에 陰刻이나 陽刻 등 다양한 表現되었다.

‘井·井’ 銘, ‘習·井·井’ 銘, 井排銘, 井排銘이 새겨진 암키와가 있고 ‘山井’ 銘은 小圓形의 平瓦片에 陰刻되었다.

앞서의 ‘辛審龍王’ 銘 容器類, ‘龍’ 字銘 容器類, ‘三國遺事’의 文虎王 法敏條(..朕身後願爲

6) 金泰坤, 韓國民間信仰研究, 韓國巫俗叢書6, 集文堂, 1983.

7) 高敬姬, 新羅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3.

8) 韓炳三, 雁鴨池 名稱에 대하여, 考古美術153號, 韓國미술사학회.

9) 李丙燾 譯註, 三國遺事, 東國文化社, 1969.

護國 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萬波息笛條(. . . 曰 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抑又金公庚信及三十三之一子...), 芬皇寺 우물 안에 있는 護國龍에 대한 記錄, 東宮官에 있었던 龍王典 등으로 볼 때 이 井字는 新羅人의 在來信仰이었던 龍王信仰과 관련된 것으로 推定된다. 특히 雁鴨池를 造成한 文武王이 死後 東海에 龍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遺言으로 보아 당시 안압지에서 龍王信仰과 關聯된 在銘遺物이 출토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天神信仰

• 天銘이 臺附안의 胴體의 外面에 돌아가면서 12回押印 되었다. ‘天’字가 容器外面에 意圖의으로 押印되어 있어 이 완들이 어떤 特殊用途에 使用되기 위하여 製作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것은 天神信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天神信仰은 권위를 지닌 神性族의 의미를 지니면서 國邑을 중심으로 聯盟王國을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社會的으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지닌다. 이 信仰은 新羅에서 佛敎가 流入되기 이전에 成立된 傳統信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관련해서는 三國遺事의 기록으로 赫居世王條에 六部の 祖上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와 金闕智 脫解王條에 紫色 구름이 하늘에서 땅에 뻗어있는데 구름가운데 黃金계가 나무 끝에 걸려 있고.... 이것을 왕에게 아뢴다와 延鳥郎 細鳥女條에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다와 眞興王條에 나라의 興亡은 하늘에 달렸으니 만일 하늘이 高(句)麗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어찌 敢히 바라리오 등이 있다.

③ 神仙思想

• 찬함 底部片에 ‘仙’字 銘文이 쓰여있다.

이 仙字는 神仙思想과 연관된 銘文으로 추정된다. 神仙思想이란 東海에 神仙이 살고 있어서 不老長生을 한다하여 中國秦始皇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 仙藥을 求해 오도록 했다한다.

④ 十二支思想

十二支란 열두개의 地支의 총칭으로 子, 丑,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를 말한다.

• 骨壺의 뚜껑받이 맺음고리의 남아 있는 2개에서 그 중 한 개의 맺음고리 밑에 縱으로 ‘子’字와 다른 한 곳에 ‘午’字가 朱書로 되어 있다.

이 銘文은 統一新羅時代에 十二支가 獸首人身의 像으로 陵墓의 護石에 새기거나 圓刻 像으로 製作하여 配置함으로써 被葬者를 守護한다는 당시 十二支信仰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랍석제 蓋에는 ‘崇’, ‘天’, ‘文’ 銘文이 토제개에는 ‘東’ 銘文이 土製완과 접시에는 ‘右’ 銘文이 土製대접에는 會, 崇, 命, 右 銘文이 새겨있고 이것들은 祭祀관련 銘文으로 보인다.

2. 王家風俗관련

① 酒令具

雁鴨池는 東宮의 臨海殿에 沿해 있고 三國史記 孝昭王 6년(697)에 臨海殿에서 잔치한 記錄에서 보면 이 雁鴨池는 宮中의 遊宴所로 使用된 듯하며 이곳에서 出土된 酒令具의 銘文에서도 이러한 事實을 엿볼 수 있다. 이 酒令具는 참나무로 만들어졌으며 6角形面이 6개, 4角形面이 8개가 기하학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손에 쥐고 굴리기에 적당한 크기이다. 이 14면 酒令具에는 각 면마다 글이 陰刻되었다. 이 글귀와 풀이는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마시기(自唱自飲)’ ‘술 석잔 한번에 마시기(三盞一去)’ ‘소리없이 춤추기(禁聲作舞)’ ‘술잔 비우고 크게 웃기(飲盡大笑)’ ‘여러 사람 코 때리기(衆人打鼻)’ ‘달려들어도 가만 있기(有犯孔過)’ ‘아무에게나 노래 청하기(任意請歌)’ ‘술 두잔이면 즉각 마시기(兩盞則放)’ ‘시 한수 읊기(空詠詩過)’ ‘추물을 모방하기(醜物莫放)’ ‘스스로 괴래만이라는 노래를 부르기(自唱怪來

晩) '간질어도 가만 있기(弄面孔過)' '팔뚝을 구부린채 다 마시기(曲身則盡)' '月鏡 한 곡조 부르기(月鏡一曲)' 등 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酒令具에 나타난 銘文으로 당시 新羅 貴族들의 風流의 한 면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② 舍娘同銘骨製裝飾

내부가 관통된 圓筒形의 骨製裝飾具이다. 외면에 6행으로 段落되는 '士娘同. 瓜胡同. 小舍. 雙同. 主娘同. 上女女子同' 銘이 陰刻되었다. 銘文은 '남녀가 함께 영원히, 참외가 한닝쿨인 것처럼, 둘이 함께,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이 (함께) 영원히' 로 풀이된다.

3. 官府名

① 臺附완의 굽안바닥에 크게 '洗宅' 銘이 朱書로 쓰여있다.

洗宅은 東宮宮에 설치된 官府名으로 지금의 비서실 같은 기구이다. 三國史記 職官志에 의하면 그 구성원은 대사 8명, 從舍知 2명이다.

② 찬함 口緣部の 外底面に 縱書로 '本彼宮' 字가 朱書로 되었다. 이 本彼宮은 三國史記 職官志에 의하면, 신문왕 원년에 두었다. 그 구성원은 虞가 1명, 私田 1名, 工翁 2명, 典翁 1명, 사가 2명 이다.

③ 철제자물쇠의 사각 長形 胴體正面에 綜書로 '東宮衙鎰' 銘文이 針刻되었다. 東宮衙는 官府名으로 三國史記 職官志에 의하면 경덕왕 11년에 두었다. 그 구성원은 上大舍 1명, 次大舍 1명이다.

④ 圓筒形臺附硯(벼루) 굽안 바닥에 司가 墨書되었다.

司는 창고를 관리하는 관서명으로 추정된다.

4. 官職名

• 靑銅製皿으로 비교적 안정된 접시 형태의 굽안바닥 뒤쪽에 '舍人' 이 縱으로 針刻되었다. 三國史記 職官志에는 上舍人, 下舍人이 記錄되어있고 그 官을 설치한 시초 및 지위와 下가 자상치 않다고 되어있다.

5. 建物名

① 자물쇠의 四角長形의 胴體正面에 '思正堂北 0' 5字가 縱으로 針刻되었다. 雁鴨池 바로 西便이 그 당시에 東宮이었던 것으로 볼 때 이 銘文은 당시 東宮內의 한 建物名을 나타낸 것으로 推定된다.

② 자물쇠의 四角長形의 胴體正面에 '舍零闌鎰' 이 縱으로 針刻되었다. 이것은 東宮內의 한 건물명으로 推定된다.

③ 정체 자물쇠에 針刻된 '東宮衙鎰' 은 三國史記 文武王 19년조(679)에 못 서편에 동궁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在銘銘文이다.

V. 新羅王家 風俗 및 職官과 苑池 造營과의 연관성

1. 龍, 山神信仰

龍信仰은 新羅에 뿌리깊은 信仰으로서 三國史記에 龍과 관련된 기록이 자주 나오고 있다. 특히 대궐 동쪽의 못에 龍이 출현했다는 沾解尼師今 7년의 기록과 味鄒尼師今 원년의 기록에서 미루어 볼 때 東宮의 東쪽에 조성된 雁鴨池 自體를 龍이 사는 바다로 象徵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다.

雁鴨池에 造山을 했다는 三國史記의 기록과 그 동쪽에 巫山十二峯을 만들었다는 東史綱目的 기록에서 山은 곧 山神信仰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 天神信仰

三國統一을 前後한 雁鴨池 造營의 時代의 背景과 관련시켜 볼 때 天神信仰은 新羅 王權을 중심으로 聯盟王國을 結속시키려는 統一意志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神仙思想

雁鴨池 造成의 思想的 背景으로 道家思想에 의한 三神島를 뜻하는 瀛州, 蓬萊, 方丈의 세 섬이 雁鴨池에 造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三神島는 中國秦始皇代에 못 속에 蓬萊 島를 築造하고 漢代에 건장궁의 북쪽 泰液池에 三神山을 축조하였으며 이 후 중국 皇家園林의 배치형식의 기본이 되었다.

雁鴨池의 세섬도 이러한 中國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東宮衛의 銘文으로 이러한 雁鴨池가 東宮 의 苑池임을 알 수 있고 酒令具나 骨製裝 飾具 에서 이곳에서 여러가지 遊宴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위의 雁鴨池 造營을 考察하고 新羅 왕가풍속 을 雁鴨池 출토 在銘 銘文에서 分析한바에 의 하면

1) 文武王 14년에 雁鴨池를 造成했다는 三 國史記의 기록을 在銘 銘文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文武王 14년은 이 못공사를 착 수한 시기이며 三國이 완전한 통일을 이룩한 文武王 16년 이후에야 대대적인 못공사가 이 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2) 당시에 在來信仰인 龍信仰, 山神信仰, 天神信仰이 왕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이 것이 아마 못을 造營하는데 影響을 준 것 같

다. 즉 臨海殿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雁鴨 池 자체를 바다로 상징하고 있고 이 바다에는 龍이 살고 있다고 풀이 할 수도 있겠다. 또한 못 동쪽 護岸에 造山을 한 것도 山神信仰과 관 계가 있다 하겠다.

3) 道家의 神仙思想이 못 내의 세 섬 즉 三 神島를 조성 하는데 影響을 준 것 같다.

못안에 세 섬을 造成하는 이 三神島는 中國 秦時代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中國 皇家 園林 에서 못을 조성하는 기본골격이 되어왔다.

4) 雁鴨池의 서편에 있는 동궁은 동궁이 거 처하는 곳으로 東宮의 臨海殿에서는 각 종의 宴會와 遊宴이 행해졌다는 三國史記의 기록이 있는데 이곳의 출토유물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

5) 新羅에 법흥왕(527)년에 佛敎가 公認되 었고 雁鴨池에 佛敎관련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 었으나 雁鴨池 조성에는 佛敎가 별다른 影響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참고문헌

- 崔永禧, 역사적 배경, 雁鴨池, 文化財管理局, 1978.
- 趙由典, 皇龍寺와 雁鴨池, 경주 박물관대학 강의교재, 1994.
- 金泰坤, 韓國民俗信仰研究, 集文堂, 1983.
- 高敬姬, 新羅月池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3.
- 韓炳三, 雁鴨池 名稱에 대하여, 고고미술153호.
- 洪淳昶, 新羅民俗의 新研究, 신라문화선양회, 1983.
- 정재훈, 造景學의 考察, 雁鴨池, 문화재관리 국, 1978.
- 朴方龍, 新羅都城의 宮闕配置와 古道, 考古 歷史學誌, 第 11·12合輯,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6.
- 辛鎬烈 譯, 金富軾, 三國史記, 東西文化社, 1976.
- 李丙齋 譯註, 三國遺事, 東國文化社, 1969.
- 東史綱目,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78.